

웨스터 민스터신앙고백서



제 7 장 인간에게 대한 하나님의 언약 / 1항

(창조주)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은 너무 크다. 그러므로 처음부터 이성 있는 피조물인 인간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순종할 책임을 지고 있었다. 그런데, 그 분을 인간들의 복과 상급으로 모실 길은 전혀 없었다. 다만 하나님 편에서 친히 자원하여 낮아지셔서 인류를 찾아 주시는 길 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. 그것이 곧바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취하신 언약(covenant)의 방법이다. (사 40:13; 삼상 2:35; 욥 9:32~33; 22:2~3, 35:7~8; 시 100:2~3, 113:5~6; 사 40:14~17; 눅 17:10; 행 17:24~25)



제 7 장 인간에게 대한 하나님의 언약 / 2항

인류에게 맺어주신 하나님의 첫 언약은 “행위 언약”(Covenant of Works)이다.(갈3:12) 이 언약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및 아담에게 대표된 그 후손들에게(롬 5:12~20,10:5) 생명을 약속하셨다. 그 약속은 그들의 완전한 개인적 순종을(창2:17;갈3:10) 조건으로 하신 것이다.

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(창세기 2:17)



제 7 장 인간에게 대한 하나님의 언약 / 3항

인류는 범죄 하였으므로 행위언약으로는 생명을 이룰 수 없게 되었다. 그러므로 하나님은 둘째 언약을 맺어 주시기를 기뻐 하셨다.(롬 8:3; 창 3:15; 사 42:6; 롬 3:20~21; 갈 3:21)

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언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(로마서 8:3)



제 7 장 인간에게 대한 하나님의 언약 / 3항

그것은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(Covenant of Grace)이라고 하는데, 이 언약에서 그는

- (1)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과 구원을 거저 제공하셨고,
- (2) 사람들이 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되도록 하셨고, (갈 3:11; 막16:15~16; 요 3:16; 롬 10:6,9)
- (3) 영생을 얻기로 예정된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원하여 믿도록 해 주신 것이다 (요 6:44~45; 겔 36:26~27).

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 이라
(갈라디아서 3:11)

제 7 장 인간에게 대한 하나님의 언약 / 4항

이 은혜 언약은 종종 유언의 내용으로 성경에 해설되어 있다. 이는 (1) 유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(2) 유언으로 증여(贈與)된 영원한 기업 또는 그 기업에 속한 모든 것을 포괄한 내용이다 (히 9:16; 눅 22:20; 고전 11:25; 히 7:22; 9:15,17)

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(히브리서 9:16)



제 7 장 인간에게 대한 하나님의 언약 / 5항

이 은혜 언약은 율법시대와 복음시대에 (고후 3:6~9) 각각 다른 형태로 실시되었다. 율법시대에 유대 민족에게 실시된 것은 약속, 예언, 제물, 할례, 유월절 양, 기타 모형들과 규례들이다. 이것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(고전 5:7; 롬 4:11; 골 2:11~12; 히 8장~10장)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그 시대의 선민을 약속된 메시아 신앙으로 육성하시기에 충분하였고 또 유효하였다.

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 되셨느니라 (고린도전서 5:7)



제 7 장 인간에게 대한 하나님의 언약 / 5항

그 때에는 약속된 메시아로 말미암아(요 8:56) 사람들이 충분한 사죄와 영원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구약이다 (갈 3:7~9,14).

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(요한복음 8:56)



제 7 장 인간에게 대한 하나님의 언약 / 6항

실체 (골 2:17)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복음시대에는 언약 실시의 규례로서 설교와 성례 (세례와 성찬) 뿐이다 (마 28:20; 고전 11:23~25). 이 규례들이 수효로 보아서는 적고, 그 사역 양상이 비교적 단순하고, 외관상 화려하지도 않다.

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 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(골로새서 2:17)

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(마태복음 28:20)

제 7 장 인간에게 대한 하나님의 언약 / 6항

그러나 그것으로써 더욱 총만하고도 명확한 영적 효력을 (히12:24; 롬 31:33,33:34; 히 12:22~27) 모든 나라 (유대인과 사마리아) (엡 2:7; 마 29:19; 엡 2:15~19)에 나타낸다. 이것을 신약이라고 부른다 (눅 22:20). 이처럼 두 시대의 계시(啓示)형태는 서로 다르지만 그 언약들이 실질적으로는 하나요, 동일한 것이다 (히13:8; 시 32:1; 행 15:11; 롬3:21~23, 30; 4:3,6,16~17,23~24; 갈 3:14,16).



제 7 장 인간에게 대한 하나님의 언약 / 6항

1

새 언약의 증보자이신 예수와 밋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(히브리서 12:24)

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(에베소서 2:7)

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 하시니라 (히브리서 13:8)

